

Diary

나는 1997년 2월 16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태어났다. 공간 데이터와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전반이 오래전부터 나를 사로잡아 왔다. 데이터를 다룰 때 나는 Pandas, GeoPandas, NumPy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고, 모델링 단계에서는 scikit-learn과 PyTorch로 딥러닝 모델을 구축해 왔다. 학습시킨 모델을 FastAPI로 서비스화한 경험이 있고, PostgreSQL과 PostGIS로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줄 안다. 지금의 나를 구성하는 기술 스택을 손에 잡히는 대로 적어 보면 이렇다: Python, PyTorch, FastAPI, scikit-learn, LangChain, OpenCV, Linux, SQLite, PostgreSQL, GitHub, React. 나는 이 도구들을 바탕으로 꾸준히 역량을 쌓아 가고 있고, 커리어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중이다.

돌아보면, 나는 본래 토목 엔지니어였다.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이해관계자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협업하는 법을 배웠다. 2012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부산 남일고등학교에서 공부했고, 2015년 3월에는 동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에 진학해 토목공학을 전공했다. 학문적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 2022년 8월에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졸업 뒤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서울의 삼보기술단 도로부에서 토목 엔지니어로 일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도로 및 고속도로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하며 프로젝트 관리 경험을 쌓았다.

그러나 나는 인공지능의 가능성에 매료되었다. 현장에서 마주하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문제들을 보면서 '이런 문제들은 컴퓨터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컴퓨터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모든 산업 현장에 완벽히 스며들진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인공지능 엔지니어로의 전환을 결심했고,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원티드랩에서 진행한 "PotenUP 데이터 AI 개발자 양성과정"을 수강하며 인공지능 이론과 실무적 개발 방법을 체계적으로 익혔다. 이후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와이즈플러스에서 R&D 인턴으로 활동했다. 그때 나는 Python, QGIS, PostgreSQL을 활용해 침수위험지도 데이터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했고, SWMM을 사용해 침수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했다. 그리고 2025년 9월부터는 서울의 SLZ에서 AI 엔지니어로 재직하며, 디지털 트윈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내가 현장에서 보아 온 문제들을 데이터와 모델, 그리고 시스템으로 풀어 보겠다는 나의 응답이다.

이 페이지(내가 운영하는 이 공간)에 대해서도 기록해 둔다. 이곳은 한국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나를 알 수 있도록 만든 소개 페이지이자, ChatBot을 통해 나와 간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실험적인 공간이다. 우리는 여기서 오직 영어로 소통한다. 직접 메일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ChatBot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 페이지에는 나의 프로필, 타임라인, 프로젝트, 그리고 인터뷰 형식의 소개가 담겨 있다. 나는 웹 개발자도 디자이너도 아니기 때문에, 페이지 디자인이 트렌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독자들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 하지만 나는 내용과 기능으로 설득하고 싶다.

앞으로 어떤 연구와 분야에 집중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적어 놓는다. 나는 스마트 시티 분야에 관심이 깊다. 과거에는 도심 속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이 발로 도시를 순찰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CCTV가 보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일상에 스며든 것도 큰 변화다. 나 역시 더 발전된 기술을 통해 도심 일상에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편리함을 높이는 연구를 하고 싶다. 일반 도시에서 스마트 도시로, AI를 적용해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그것이 나의 목표다.

나를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보자면, 나는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는 엔지니어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에스컬레이터지만, 나는 그 위에서 한 걸음 더 내딛는다. 쉬지 않고 계단을 오르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효율적인 사람이다. 나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한다. 효율 위에 성실을 더하고, 성실 속에 효율을 담아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엔지니어.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해 두면, 오늘의 갈피가 흐트러질 때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다.

롤모델은 조셉 스완이다. 많은 사람들이 전구의 발명자를 토마스 에디슨으로 기억하지만, 최초의 전구를 발명한 사람은 조셉 스완이다. 에디슨은 분명 전구를 상용화하고 널리 알린 인물이지만, 세상에 '빛'을 처음 가져온 발명가는 스완이었다. 그의 발명 덕분에 인류는 어두운 밤에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고, 2차 산업혁명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과 사회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내가 그를 롤모델로 삼는 이유는, 그의 발명이 단순한 기술의 차원을 넘어 사람들의 생활 속 행복과 편리함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조셉 스완처럼, 내가 개발하는 기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10년 뒤의 내 모습을 그려 본다. 그때의 나는 분명 지금보다 더 많은 경험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역량을 쌓아 올렸을 것이다. 사업을 하여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을 수도 있고, 대기업에서 높은 성과와 보상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모습은 외적 성취의 목록이 아니다. 나는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어려움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는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싶다. 육체는 세월에 따라 늙어가더라도, 내면만큼은 여전히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가득 차 있기를. 그 마음이 나를 오늘도 한 걸음 더 앞으로,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걷게 만든다.

이 기록이 나의 시작과 전환, 배움과 실험, 그리고 앞으로의 약속을 한 페이지에 온전히 담아두는 일이라면,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에게 충분히 설명되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데이터와 모델과 도시의 문제로 돌아간다. 내일의 문제를 조금 더 잘 풀기 위해.